"내가 받은 온정 돌려드립니다"

서정암 변호사, 서울대 합격 숭덕고 정아영 양에 장학금

여천고 한성근·광양중마고 이진 학생에도 도움의 손길

서정암 변호사

구두닦이를 하면서 학업의 꿈을 어렵사리 지켜온 한 변호사가 자신처럼 어려운 학생을 위해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릴레이 선행'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또 광주·전남 지역에서 역경을 딛고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숭덕고에 따르면 서울대 식물생산산림과학부에 합격했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등록금 마련을 걱정했던 정아영(18)양 소식〈광주일보 12월 27일 16면〉을 접한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서정암(48) 변호사가 장학금 1000만원을 건넸다. 향후 학자금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양은 조손가정의 가장이다.

강진 출신인 서 변호사는 '구두닦이 판사'로 유명하다. 17살 때 서울로 올라가 구두를 닦으며 중·고등 검정고시를 뚫었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주변의 도움에 힘입어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복을 입었다.

본보에서 정양의 사연을 접하고 흔쾌히 장학금을 전달한 서 변호사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기계우주항공학부에 합격하고도 근심했던 여천고 한성근(18)군도 웃음을 되찾았다.

한군의 아버지는 선천적인 청각 장애로 말을 못하고, 어머니도 다섯 살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역시 말하기가 어려운 데다 손까지 마비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다. 광주일보 보도 이후 한국장학재단, 이랜드 복지재단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데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광양중마고 이 진(18) 학생도 환한 웃음을 짓게됐다. 그는 어머니 병 수발과 아르바이트로 살림을 꾸려온 소녀 가장이다.

학교에 따르면 광주일보 보도를 계기로 각계의 성원이 이어져 10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고, 서울 보라매 병원은 어머니 치료를 문의해 왔다.

광양시 백운장학회도 200만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50년 폭행' 남편 살해 할머니

법원 "집유" 선처

검찰 항소 안할 듯

50여년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70대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 데 이어 법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설)는 28일 남편 강모(83)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유모(여·7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고령인데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한 점 등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0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머리와 가슴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달 5일 검찰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평생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우발적 살인인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살에 남편 강씨와 결혼한 뒤 내리 7명의 딸을 낳으면서 아들을 원하는 남편과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졌으며, 자녀들의 출가 후에도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려왔다.

유씨는 최근 버거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에게 "왜 병원에 가지 않느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창고에 있던 둔기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파킨슨병 의대 교수 신병비관 목매 숨져

지난 27일 오후 7시께 광주 모 대학교 의대 교수 김모(56)씨가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부인(52)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경찰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해보니 남편이 유서를 남긴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서재 책상 위에서는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1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조사 김씨는 약 2개월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괴로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루미나리에 철거 28일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가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의해 철거되고 있다. 4년 전 동구가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이 시설은 비싼 유지·보수비와 시설 노후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인근 상인들이 철거를 요구해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

헌재 '미네르바 처벌 조항' 위헌

전기통신기본법 표현의 자유 침해 … 처벌근거 없어져 논란 가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의 유언비어 유포 등 공익에 반하는 통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어져 통신의 적법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인명구조 목포해경 3명 1계급 특진

5명에 해경청장 표창도

지난 26일 침몰하는 화물선에서 극적으로 승객과 선원 15명을 구조해낸 목포해양경찰 3009함 승조원 3명이 1계급 특별진급한다.

목포해경은 28일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구조작전을 펼쳐 15명의 목숨을 구해 낸 3009함 승조원 가운데 3명을 선정해 특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함장(경정 김문홍·52) 및 기관장 등 3009함의 간부회의를 통해 비교적 구조작전에서 특별한 공을 세운 경사, 경장, 순경을 각 1명씩 선발해 경위, 경사, 경장으로 각각 진급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3009함 승조원들 가운데 5명에게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표창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급식 및 표창장 수여식은 현재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중인 3009함이 목포해경 부두에 입항하는 오는 31일, 3009함 위에서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검찰, 서기동 구례군수 조사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8일 구례군 사회복지사업 중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기동 구례군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토지요양원 신축과정에서 뒷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지난 27일 서 군수의 자택과 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

친절 베풀다 도둑 몰려 경찰서로

쌍나팔

○…과잉 친절을 베풀던 40대 남성이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절도 혐의로 신고돼 경찰에 연행됐다가 '혐의없음' 처리.

○…2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황모(46·경기도 수원시)씨는 이날 새벽 4시15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미즈프라자 앞길에서 새벽예배를 위해 교회에 가던 김모(여·63)씨의 주먹밥 24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잡아당기다 행인에 의해 신고됐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사업에 실패한 황씨는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찾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에서 황씨는 "아주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가는 것을 보고 노모가 생각나 들어주겠다고 한 것 뿐인데, 술을 마셔서 그런 지 오해했던 것 같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월 3일